8일 Market Index

코스피 4552.37 (+1.31)
코스닥 944.06 (-3.33)
금리(국고채 3년) 2.902 (-0.008)
환율(원·달러) 1450.80 (+5.0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월 9일 금요일

HD현대
"설계·공정 전부 바꾼다"
'디지털 조선소' 속도
04

'반도체의 부활'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익 20조 새 역사

창사이래 최대… 전년비 208%↑
매출역시 23% 늘어 93조 역대최대
흐름 지속시 올해 영업익 100억 기대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20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분기 실적으로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을 이끌어온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범용 D램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공급 확대 등의 영향이 크다. 특히 이같은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경우 연간 영업이익 100조원 돌파도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08.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전 분기(12조1700억원) 대비로는 64.3% 증가했다. 지난 2018년 3분기 기록한 17조5700억원의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갈아치웠다.

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깃발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매출 역시 93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7% 늘고, 전 분기 대비 8.1%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9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메모리사업부가 책임졌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범용 D램·낸드플래시 가격 상승과 주요 빅테크향 HBM 공급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삼성전자의 2025년도 연간 매출액은 332조7700억원, 영업이익은 43조53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300.9%, 32.7%씩 증가했다. 연간 매출액이 3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고 매출이다. 연간 영업이익은 종전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었던 2018년 기록한 58조8900억 원이 역대 최고 실적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엔비디아, AMD를 비롯한 브로드컴 등 주문형 반도체(ASIC)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반도체 시장이 4~5년을 주기로 2년간 이어지는 슈퍼사이클을 기록한 만큼 삼성전자 DS 부문은 올 상반기에도 견조한 수요와 가격 상승 영향으로 높은 실적을 창출할 것"이라며 "다만 세트(완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둔화와 중국의 가성비(가격 대 성능비) 제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부별 세부 실적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왼쪽 두번째)과 김동관 부회장(왼쪽 첫번째)이 해상도 15cm급 '초저궤도(VLEO) 초고해상도(UHR) 합성개구레이다(SAR) 위성'의 실물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한화그룹

"어려워도 우주로 가는 게 한화 사명"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방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새해를 맞아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위성 생산 거점인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직접 찾으며 현장 경영에 나섰다. 우주사업 핵심 거점을 직접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소통에 나서며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한화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8일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에 위치한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방문해 새해 우주를 향한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방명록에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한화의 사명"이라며 "제주우주센터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표 기업으로 우뚝 서자"고 적고 친필 사인을 남겼다.

이날 현장에는 한화그룹 우주사업을 총괄하는 김동관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김 회장은 전시관을 둘러본 뒤 제주우주센터의 올해 사업계획과 전반적인 우주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연구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김 회장이 한화시스템 사업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진공 상태와 극저온·극고온 환경을 구현한 우주환경 시험장과 고출력 전자기파 환경에서 위성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전자파 시험장 등 핵심 시설이 들어선 클린룸을 차례로 살폈다. 이후 임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꿈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현실이 됐다"며 "달 궤도선에 이어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까지 개발하며 한화는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명실상부한 선도 주자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만든 위성이 지구의 기후 변화를 관측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며 인류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것이 한화가 추구하는 사업의 의미이자 가치"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회장은 "제주우주센터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한화의 우주를 향한 원대한 꿈의 현재이자 미래"라며 "우주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자에게만 길을 내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를 비롯해 고흥, 순천, 창원 등 우주 클러스터 지역사회와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나자"며 "여러분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끌어올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의 우주에 대한 구상은 1980년대 화약사업을 하던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화가 만든 인공위성을 한화가 직접 쏘아 올려야 한다는 철학은 민간 주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현실화됐다. 이러한 구상은 김동관 부회장에게 이어지며 2021년 그룹 우주사업을 총괄하는 '스페이스 허브' 출범으로 구체화됐다. 당시 김 부회장은 엔지니어 중심의 조직을 꾸리고 전문성과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소외계층 금리 낮추고 은행 대출기회 확대

금융위,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
금리 연 15.9%에서 12.5%로 낮춰
500만원 대출 '미소금융 청년상품'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을 '햇살론 특례 보증'으로 합치고, 금리는 연 15.9%에서 연 12.5%로 낮춘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을 받은 차주는 완제 시 미소금융을, 이후 은행권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은행권 대출이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5대 금융지주는 5년간 포용금융에 70조원을 투입한다. 〈관련기사 4면〉

8일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은 "저신용 차주가 성실하게 정책 서민금융을 상환하더라도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금융 소외, 장기 연체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일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와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 보증으로 합치고, 금리는 연 15.9%에서 연12.5%로 낮췄다. 햇살론 뱅크(평균 연 10%), 근로자햇살론(평균 10.2%) 등과 달리 상대적

으로 고금리인 햇살론15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이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청년 금융소외계층 위한 정책금융↑

금융위는 고졸자 미취업자 등 청년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청년 상품'을 도입한다. 대상은 사회 진입을 위한 자금(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이 필요한 청년으로, 연 4.5% 최대 500만 원(만기 5년)을 지원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도 지원한다.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이다. 한도는 최대 500만원(5년 만기)으로 연 4.5%의 금리로 제공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급하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는 소액 대출 공급량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추가한다.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 대출을 지원한다. 공급규모는 올해부터 연 4200억 원으로 지난해(1200억 원)보다 3000억 원 확대할 계획이다.

◆ 새희망홀씨 확대…금융사다리 제도화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금융권 진입을 돕는다. 지난해 4조 원이었던 새희망홀씨 공급을 올해는 5조 원으로 확대한 뒤 2027년 5조5000억원, 2028년 6조원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신용하위 50%) 신용대출 목표 비중을 단계적 상향한다. 지금까지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의 취급 비중이 전체 평잔의 30% 이상, 신규취급액 기준 신용대출 취급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했다. 목표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을 2026년 32%→2027년 34%→2028년 35%로 상향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체계를 통해 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을 졸업하도록 유도한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 시 미소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소금융을 모두 갚거나 성실 상환 시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면 금리와 한도가 더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메트로 한줄뉴스

▲靑 "외신, '안미경중' 벗어난 李 국익중심 실용외교 인정"
▲진성준 "이혜훈, 하루가 멀다하고 의혹 터져… 국민 눈높이 맞게 판단해야" /사진 뉴시스

▲李정부 첫 원내지도부 활동종료…문진석 "남은 개혁과제, 다음 지도부에"
▲與 "1월 임시국회 12일 시작…이혜훈 청문회 19일께"

▲한동훈 "계엄 사과 전 고성국 입당…'윤어게인' 극복 의지 있나"
▲신동욱, 윤민우 윤리위원장 논란에 "윤리위원 자격 문제 삼는 것 부적절"